

“욕구에 만족이란 없다. 오직 갈증 뿐...”



청화 스님은 물질에 바탕을 둔 행복은 언제든 지 깨어질 수 있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삶과 지금의 삶과는 천지천역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한 삶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금의 삶을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진 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 사람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만불 시대가 온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행복이 넘치는 얼굴이 될까요? 지금 선진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욕구충족에는 만족이란 것이 없고 계속 갈증만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다운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가치를 크게 발현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소유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인심이 각박해지고 심심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물질에 바탕을 둔 행복은 언제든 지 깨어질 수 있는 유리알과 같은 것이기에 위태롭고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했다.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행복, 승리와 지배에 의해서 얻는 행복, 사랑에 의한 행복, 명예와 권력에 의한 행복 등 제각기 추구하는 행복의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리에 의해 행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을 배신하고 끝내는 변하고 덧없기 때문이다. 진리

는 부귀처럼 왔다가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금강석처럼 단단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진리에 의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번뇌를 소멸해야 합니다. 번뇌는 무명의 산물인데, 번뇌

욕망·소유가 목표 아닌 행복 자체를 고민해야

가 소멸된 마음에는 반야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앙과 파멸의 독이 되기도 하므로 욕심에는 수용과 자제가 필요 합니다.”

“항 하나 사르며 비로소 흥터 없는 나를 만나는, 항 하나 사르며 나를 만나 번뇌가 없는 계단을 경건히 오르다”는 청화 스님에게 특별히 현대불교 신문 독자들을 위한 법문 한 마디를 청했다.

수향죽변 유출죽 풍종화리 과래향
水向竹邊 流出綠 風從花裏 過來香
물이 대나무 숲가를 흐르니 푸르고
바람이 꽃 속을 지나오니 향기롭구나.

“물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그 물이 어찌다 푸른 대나무숲가를 흐르니 대숲이 가지고 있는 푸른빛을 띠게 되었어요. 물은 대숲의 푸른빛을 동경하였기에 푸른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인데 바람의 소망은 향기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꽃에서만 나는 것이니 바람이 향기를 담으려면 꽃 속을 지나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숲과 꽃은 하나의 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며 누리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물 혹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는 푸른 대숲과 향기를 내뿜는 꽃밭이 많아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대숲과 꽃밭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벌어진 사회문제는 남의 문제도 아니요 남의 탓도 아님을 자각하라는 말씀이다. 내 한 마음이 보태어져 이 사회에 향기를 낼 수도 있고 밝은 푸른빛을 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청화 스님은 푸른 솔처럼 푸듯한 청년정신을 지녔는가 하면 맑고 명징하고 담박하다. “저마다 삶이 어떻게 해도, 목숨은 끝내 흰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 스님의 시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싶다.

문은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태허성숙 (太虛星淑, 1898~1969)①

중생이 세상에 부닥쳐가는 모양새는 제각각이다. 중생이 세상에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각각이니 사는 모양새 역시 제각각인 것이다. 자연히 스님들이 세상에 뛰어들어 그러한 중생들에게 부닥쳐가는 모양새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뻘히 그런 줄 다 아는 데도, 태허 성숙(太虛星淑), 그를 만나면 고민스럽다. 승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승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근현대의 많은 고승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자를 남겼다. 아니 그들의 삶,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데 그러한 각인들의 틈새를 당연한 듯이 빠져나가버린 이들 역시 적지 않다.

그런 이들 중의 한 분이 바로 태허 성숙 스님이다. 법호가 태허(太虛), 법명이 성숙(星淑)이고, 아호가 운

학교가 세워졌다. 스님은 10살 때 그 곳에 입학하여 애국심을 키웠다. 그러나 국권 상실로 학교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일본의 보통학교가 들어서자,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조부로부터 직접 한문을 배웠다. 이런 그에게 독립운동의 열의를 다져 준 것이 그의 삼촌이었다.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삼촌으로부터 독립군 얘기를 들으며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태허 스님

1916년 집안의 땅 판 돈을 몰래 들고서 그는 만주로 향한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향해 나섰던 길이 출가길이 되었다. 중국어를 몰라 원산 뱃길을 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평안도 사투리 때문에 일본군에 붙잡혀 여관에 머물게 되었고, 그 여관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마침 만산 스님을 따라 양평 용문사로 향하게 되고, 그 길이 출가길이 되었던 것이 다.

국가의 독립유공자 지정 거부했던 선지식

암(雲巖)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태허라는 법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존재가 바로 그다. 하지만 그러한 직함조차도,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조차도 사라진 기억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그이기도 하다.

광복 후 귀국한 고국 땅에서, 독립한 고향 땅에서 집 한 채 없어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얻은 친구 집 방 한 칸에 거거하면서, 나라를 빼앗은 일본군의 잔고 출신이었던 대통령에게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기를 거부해 독립유공자조차 되지 못했던 이.

스님은 태허라는 법호보다는, 성숙이라는 법명보다는 님 웨일즈의 <아리랑>에 나오는 “붉은 승려 김총장”의 실체로 세상의 공금증을 자아냈던 인물이고, 세상의 관심 또한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1898년 3월10일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 서림면(西林面) 강암동(江岩洞)에서 태어났다. 자식이 없어 고심하던 어머니가 미륵부처님께 3년간 기도한 끝에 본 아들이었다.

스님의 출가는 사실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에 독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의 고향에도 대한독립

왜 용문사로 주저앉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하지만 2년 여를 용문사에서 수학하고, 다시 봉선사로 옮겨 3년을 공부한 끝에, 당시 봉선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던 월초 스님(月初巨濤, 1858-1934)에게서 ‘성숙’이라는 법명을 받고 비구계를 수지하게 된다. 이로 보아 독립운동의 열의에 가득 차 있던 청년을 주저앉힌 무언가를, 스님은 불교에서 발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월초 스님은 근대불교교육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인데 대한제국 황실과도 적지 않은 인연을 가졌던 분이다. 스님의 은사인 풍곡신원(楓谷信源) 스님이 월초 스님의 제자이니, 성숙은 손상좌로 월초 스님을 시봉하면서 당대 독립운동의 거목들을 만나는 인연을 가지게 된다. 그곳에서 민족대표 33인인 손병희(1861-1922)와 만해스님(1879-1944)도 만나게 된다.

그 영향 때문에 태허 스님은 봉선사 몇몇 스님들과 경기도 양주와 포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돌리고, 사람을 모아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덕분에 서대문 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스님에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보살만행의 출발점이었을 뿐이었다.

석길암(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국제센터 교수)

정맥진영과 전법계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평소엔 잘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주 아프시다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았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유남 탁대영

장천 백구빈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화, 목, 토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상담·문의전화>

1600-0063